

“광산업의 힘찬 발전을 기대하며”

김재현 /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지난 2001년은 참으로 시련이 많았던 한 해였다. 2000년도 말부터 진행된 전 세계적인 경기의 부진과 4/4분기로 전망되던 경기회복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미국 테러사건의 발생 등은 경제주체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적으로 드문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95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저력을 발휘하였다.

2002년은 중요한 한해가 될 것

환란의 와중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시 지난 30년간 누적된 경제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부실을 물려받았으나,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적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에 성공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 「국민의 정부」는 출범한지 4년(정확히 3년 10개월)만에 과거 36년(62~97)간의 무역적자 867억불과 거의 맞먹는 843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도 과거 36년간의 246억불의 2.1배에 해당하는 520억불을 유치하여 환란의 조기 극복은 물론 작년말 현재 1,029억불 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은 「국민의 정부」5년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와 함께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 등이 있는 해이다. 또한 세계경제가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WTO에 가입한 중국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공명선

거의 실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임과 함께 일류경제 경쟁력을 실현하여 우리나라가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광산업 등 첨단산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

변천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제 도약할 수 있기 위하여는 IT 등의 접목을 통해 주력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IT산업의 발전은 물론 BT, NT, ET 등 유망 신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를 도모해 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 자체의 성장잠재력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광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최우선적으로 광주 광산업단지를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광산업은 연구개발(R&D)이 중시되는 기술집약적·과학기술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돌파, 극복해 가야 하

는 산업으로서 기술인력의 질과 수준이 산업경쟁력의 척도가 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창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단기간내에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월할 수 없는 산업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정부는 1단계로 광집적화 프로젝트를 2003년까지 추진, 광산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인 2010년까지는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본격 추진해 명실공히 광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단계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광주지역을 광산업 집적화단지로 삼아 한국광산업진흥회, 광기술원 설립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요소기술 개발,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 및 시장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중소기업 및 벤처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비 및 민자를 포함해 총 4천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는 국내광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5%에서 2010년에는 15%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9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0년부터 4년간 4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차년도 과제 선정에 들어가 있다. 향후 광산업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1차년도에 480여명의 인력을 배출하였다. 또한 광기술원이 2003년 건축을 완료하게 되면, 광기술개발 및 기업의 기술애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국내 광산업은 초기 육성단계를 벗어나 산업화의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밖에 국내광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광산업의 조

기정착을 위해 한국광산업진흥회를 통해 국제교류 및 홍보사업을 전개하는 등 광주지역에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2003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미래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의 것

광산업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초기의 집적화가 중요한 만큼, 한국 광산업의 미래는 광주지역의 집적화전략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를 비롯하여, 산업계, 연구계 할 것 없이 자신의 역할을 사명의식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광선진국으로의 도약도 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광관련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굳게 뭉쳐 세계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키워 나감으로써 세계일류 상품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본이다. 기업은 고용과 국민생활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새해에도 광관련 기업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 조세혜택, 기술개발 등 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광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신규시장을 창출해 나감으로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 되어 광선진국으로 진입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세계경제 침체의 골이 깊을수록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경기회복의 여명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